"제주 향후 2년간 일반회계 재정 악화"

도 2020 재정진단 보고서… 세입 감소 현상 지속
지방채무관리 상향 설정·보조금 사업 재조정 필요

올해 제주도의 재정진단 결과 향후 2년간 일반회계 재정상황 악화로 세출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재정운영 방향은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해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주도가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최근 완료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일반회계의 재정상황은 세입보다 세출이 2021년 3777억원, 2022년 4805억원이 초과돼 세출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진은 2018년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 제주지역경제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방세의 경우 올해 대비 2021년은 3.6% 감소, 2022년부터는 정체 또는 감소를 전망됐다.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침체 영향으로 관광객 감소, 도민의 소비 축소로 세외수입 역시 정체 또는 감소될 것으로 봤다.

특히 올해 자체세입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등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 징수 유예 등의 조치로 당초 예산안보다 더 감소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2021~2022년 세입 운영방향으로 세출구조조정과 기금을 사용해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 검토를 제안했다.

세입확충을 위해 제주도개발공사 출자 이익 배당금 증액과 체육시설 사용료 및 주차요금수입 등 현실화와 함께 2024년까지 지방채무관리 목표를 14% 이내에서 18% 이내로 상향 설정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27일 속개한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빚내서 빚 갚는 상황이 예견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 용역진은 세출 운영 방향으로 각종 보조금 사업 재조정(사업 폐지, 축소)을 통한 재원 확보와 필수 국비사업 이외 신청 지양 및 각종 공기관대행·민간위탁 사업 축소 조정 등 재정효율성 제고, 예산실명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는 재정진단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민간자문단이 포함된 TF를 꾸려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행안부·기재부 "4·3특별법 개정안 합의"

추경예산안 심사 회의서
"합의해 문구 국회에 보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진전이 있을 지 주목된다.

27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은 행안부와 기재부에 4·3특별법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질의했다.

윤 의원은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에 참석한 진영 행안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이에 진 장관은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구 차관도 "문구를 합의해서 국회에 드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채익 통합당 의원을 향해 "법안을 심사해달라"며 "(정부 부처 간) 얘기가 다 됐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이 의원과 윤 의원은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섰고, 강 의원은 "작년 6월에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야당이 법안 처리 지연 이유로 내세웠던 부분에 대해 두 관계 부처가 입장을 밝히면서 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불법광고물 계도효과 '톡톡'

제주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예방과 정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안내서비스는 게시자가 안내전화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400개의 발신 전용번호를 이용해 30개 회선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방식이다. 광고주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안내한다.

지난해 제주시는 2029건의 불법행위 대상자에게 618만3807회를 발신했다. 그 결과 올 1분기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가 198만6507건으로 작년 동기(476만5566건) 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미숙기자

해풍에 오징어 말리기 27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네포구에는 봄 햇살 아래 오징어말리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강희만기자

"中,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공사 입찰자격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청와대는 27일 "한전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에 중국은 입찰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중국 등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을 미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다"고 확인했다.

청와대는 "청원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과 관련해, 중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청원인이 제기한 해저케이블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전은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따라서 중국 등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다"며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원인은 지난 2월 27일 한전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 사업 국제경쟁입찰과 관련해 "한 나라의 공기업이라는 한국전력공사가 국내기업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유례도 없는 중국 기업의 입찰을 허용시켜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한달 만인 3월 27일 38만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한달 간 20만명 동의)을 충족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2월 완도~제주 구간 전력 3연계 사업 국제입찰 공고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중국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됐다. 서울=부미현기자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된다

박호영 도의원 '관광진흥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원도

제주 자역 야간관광 활성화와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근거마련과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관광지원서비스업을 도내 관광업종에 포함시킴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호형 의원은 "야간관광은 주로 낮시간대 이뤄지는 관광활동을 야간까지 늘려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조례는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야간관광 인프라구축, 야간관광 명소발굴 육성 및 홍보마케팅 등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그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신설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은 평균 매출액이 일정정도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 거래하지만 그동안 관광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사업을 관광에 포함시켜 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코로나19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의 지원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제주 지역경제의 회생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 조례안은 28일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조례가 공포되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지원서비스업의 경우 관광진흥기금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오은지기자

코로나19 격리장소 이탈시
27일부터 전자손목팔찌 착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27일부터 격리 장소를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안심밴드는 20m 이상을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할 경우에는 전담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총 402명이다. 이태윤기자

제주도진씨종친회
입도조묘제봉행 및 정기총회

만물이 생동하는 만춘지절에 종친제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도 입도조 묘제봉행과 더불어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종친님께서 참석하시어 숭조애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0년 5월 3일(일요일) 10:00
○ 장 소 : 광명정 선영(애월읍 애월리)
■ 총회장소 : 애월하나로마트 연회장 2층 11시
☎ 742-5389 (애월읍 애월리)
■ 안 건 : 1) 2019년도 결산승인의 건
2)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
3) 애월읍 곽지리 277-1 관련의 건
4) 회장단 임원 선출의 건
■ 연 락 처 : 회장 창섭 010-2685-0125
총무 영남 010-3699-7324
재무 창호 010-2696-8306

제 주 도 진 씨 종 친 회
회 장 진 창 섭

그랜드 보청기
경자년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 전 브랜드 50~60% 대할인!!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렸수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캠페인
1.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손씻기
2.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3. 마스크 착용 생활화 하기
그랜드 보청기는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제주대 와이덱스 보청기 CGV 화북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 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읍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 (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